2008 새해설계 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장 윤옥순

새터민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 전개

포천시 행사 등 각종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

"안성 하나원에서 새터민을 소흘읍사무소까지 안내하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 회원들이 이들을 한 명씩 각자가 살아갈 아파트에 안내하고 장보기, 아파트 생활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6일 오후2시 소흘읍사무소에 만나 윤옥순(53·사진) 회장은 3월9일 새터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추장담그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안성 하나원에서 새터민 5명이 포천시민이 되는 날이라고 한다.

기본재료와 주변 환경만들기 위한 준비물을 꼼꼼히 준비하고 소흘읍사무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윤 회장은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십자봉사회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1월1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 윤 회장은 활동에 대해 "시작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원들이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협의회 주요 활동은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 일동국군병원 위문 ▶통일부, 시청, 포천경찰서, 적십자지구협의회 새터민관련 간담회 ▶2/4분기 지사협의회 및 중국 홍십자 방문 ▶제5회 1m1자선 걷기대회 참가 ▶새터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실시 ▶새터민과 봉사자가 함께하는 천연 염색체험 행사 ▶태안반도 기름유출현장 기름제거 봉사활동 ▶새터민과 함께 하는 송년의 밤 행사 등이다.

윤 회장은 적십자 봉사원은 "적십자가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할 것과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고 언제 적십자의 명예와 전통을 빛내도록 힘쓰겠다는 서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지구협의회 2008년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구협의회(회장 윤옥순) ▶포천일동(회장 이강애) ▶포천영중(회장 곽복준) ▶포천영북(회장 양승자) ▶포천은행나무(회장 김미자) ▶포천가산(회장 이금숙) ▶포천솔모루(회장 김경복) ▶포천무궁화(회장 유미경) ▶포천선단사랑(회장 김순자) ▶포천아마무선(회장 김수성) ▶포천관인(회장 유해순) ▶포천신북(회장 나병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자'

영북면, 생활폐기물 투기근절 결의대회 개최

영북면은 3월5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노인회, 자연보호 협의회, 유관기관 및 단체, 군장병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청소를 실시했다.

영북면(면장 이성원)은 3월5일 오전 9시 면사무소 광장에서 노인회, 자연보호 협의회, 유관기관 및 단체, 군장병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국민의례, 단복 및 어깨띠 걸어주기, 생활폐기물 근절 결의문 낭독, 청소구역안내, 청소도구 배부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청결·질서·안전을 먼저 실천하는 마음가짐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는 생활실천문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성원 영북면장은 "오늘 새봄맞이 대청소 결의대회를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깨끗이 청소도 하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군 장병들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운천 시내와 부소천 주변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겨울동안 노면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민·관·군이 합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운동과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북면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영북면 19개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직접 청소도구를 들고 나와 경로당 주변을 청소했으며, 11시부터는 부소천 주변을 육군 제 3739부대장이 장병들과 함께 직접 청소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포천관내 경로당 5곳에 오디오북 전용書家 설치

(사)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회장 이금종) 경로당전담 관리부는 경로당 5곳에 오디오북 전용서가를 설치하고 바둑, 장기로 무료함을 달래던 어르신들이 쉽고 간편하게 귀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오디오북 서가설치사업은 포천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가산면 마산1리, 관인면 탄동1리, 내촌면 진목3리, 신북면 심곡리(외북), 포천동 신읍동(신읍8)에 설치됐다.

200편의 오디오북CD와 CD player, CD수납장 등 설치해 경로당 내에 작은 오디오북 도서관이 설치된 것이다.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컴퓨터, MP3에 다운로드받아 듣는 오디오북과는 달리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오디오북 CD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버튼을 누르는 것이 전부로 조작법이 간단해 오디오 북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포천시지회 경로당전담 관리자 김희경 부장은 "노안으로 독서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쉽게 귀로 책을 들으시면서 그동안 멀리하셨던 독서로 대화가 단절된 가족들, 친구들과 더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싶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며 "오디오북 전용 서가 설치 후 경로당의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주민 여성 한국어 · 컴퓨터 교육 수료식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1급 교육과정 마치고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2월29일 소흘읍사무소에서 이주민 여성들의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1급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소장 신상록)는 2월29일 소흘읍사무소에서 이주민 여성들의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1급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17명의 수료생을 비롯해 김재용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사장, 윤석희 소흘읍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수료생들은 결혼 이주민 여성들로 한국사회에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는 물론 컴퓨터와 요리, 악기등을 배울 수 있었다.

수료생들을 대표해 칸티야(태국, 30세), 동가(몽골, 36세)씨는 일상생활에서 말로 인한 실수에 대해 발표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시댁에 가자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님 댁에 가기 싫어'라는 말이 어려워서 "시어머님 싫어"라고 말했다가 남편과 다툰일, 서울 4호선 이태원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4호선 끝 인덕원역에서 기다린 일, 식용유를 사러 마트에 갔다가 식초를 사 갖고 와서 음식을 망친 일 등이다.

포천다문화가정지원 센터는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교육했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성결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2기를 모집 중에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면, 우리가 이끌어 나가요"

영북면 제 6 · 7대 기수연합회장 이 · 취임식

14개 기수 4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영북면 기수연합회장 3월5일 오후7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김재영 회장, 제 7대 강용훈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14개 기수 4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영북면 기수연합회는 3월5일 오후7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김재영 회장, 제 7대 강용훈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재영 전임 회장은 "제6대 기수연합회장의 중책을 맡아 임기를 다하고 무사히 신임회장님께 모든 것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기수연합회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김치 나누기, 지역활성화와 화합을 위한 은장산 해맞이 축제, 상가 번영을 위한 상인회 조직하는 등 많은 일을 해 왔으며 회원모두는 기수연합회라는 커다란 배의 키를 잡을 각오로 뜻을 함께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강용훈 회장은 "발이 바닥에 닿으면 차고 올라올 기회가 있는 것이며 지금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오늘이 경칩으로 개구리가 흙을 박차고 깨어나는 날인데 영북사회도 뭔가 깨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2년간 영북면을 이끌어나갈 제 7대 강용훈 기수연합회장은 1월26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신임 연합회 임원 및 각 기수별 회장은 다음과 같다.

□연합회 임원 ▶회장 강용훈 ▶상임 부회장 김영호 ▶부회장 이홍기 ▶사무국장 전영성 ▶사무차장 차영찬 ▶회계부장 이경준 ▶총무부장 이기용 ▶회계감사 최재두 ▶사업감사 김상철 □기수별 회장 ▶명예회원 삼사회 김용준 ▶육육회 박철수 ▶한울회 조명식 ▶영우회 류회관 ▶육이회 최남규 ▶명우회 김혜복 ▶칠육회 최경일 ▶육오회 이창화 ▶백마회 김종식 ▶동심회 정성열 ▶화랑회 이대연 ▶팔팔회 유형상 ▶영사회 전원택 ▶칠일회 이병삼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주부이야기

송명수 선생님께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가산초등학교 6학년 2반 송명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용주 학생 엄마 이은미입니다. 개학식 날 아침 용주가 머리가 아프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개학첫 날부터 약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가는 도중 토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병원에 데리고 가야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기나긴 겨울방학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며 기뻐하는 모습과 친했던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길 바라며 담임선생님은 어느 분일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 준비를 바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낯설고 불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시골 아이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과 공기 좋은 가산초등학교에 정이 흠뻑 드실 것입니다.

선생님 편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자."

머리에는 지혜를, 가슴에는 사랑을,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를 목표로 지도하시겠다는 글을 읽고 학부모로서 감동 받았고 책임감을 갖고 지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 시 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의 막내아들 용주는 학생으로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책도 많이 읽고 건강하게 자라며 인성적으로 남에게 배려 할 수 있는 아이, 현명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용주는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로 활동하고 포천시 초등학교 총무를 맡았습니다. 가산초등학교 행사도 취재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책임감 있는 학생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엄마인 저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께서도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제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쓴 글 '푸른 뜰에 서다'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을 선생님께 드립니다. 이은미 올림

우리신랑 최고

원회순 주부명예기자

우리 신랑은 6남2녀중 셋째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나에게는 멋진 남편이고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다. 가족은 네 식구 가장인 신랑과 큰아들 민재는 군에 입대해 열심 군복무하고 작은아들은 중학생이다. 군내면에서 태어나 가산에서 자리잡고 제일 중요한 없어서는 안될 지하수 사업과 포도농사를 짓고 있다.

지하수사업은 밖에서 하는 일이라서 항상 고생이 많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걱정이고 여름에는 더워서 얼굴이 새까맣게 탄다.

내가 허리가 안좋아 힘든 일을 하지 못하여 포도 농사도 남편 없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지하수사업과 포도농사에 항상 바쁘고 고생이 많다.

나를 만나 가족을 이루고 사는 우리 남편 자식에게 항상 양보하며 감싸주는 인정 많은 신랑이다. 많은 것을 갖고 살지는 않지만 마음 하나는 부자인 남편이다.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해 우리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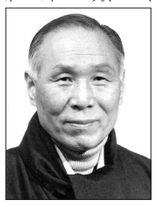
집 앞 정원에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고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 우리 신랑을 만나 마음고생은 하였으나 육체적으로는 편하고 여유롭게 살고 있으니 신랑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 남편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우리 큰아들 무사히 군복무 마치고 작은 아들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조그마한 소망이다.

무자년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바란다.

웰빙 부사의(不思意) 사유(思惟)와 성정(性情) 44

성정이란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



이규임 한국영상제작학회 명예회장

세상은 상상(想像)의 산물이다. 생각의 산물이다.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의미(意味)가 없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생각은 무엇으로 하는가? 머리로 하는가? 마음으로 하는가?

물론 생각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심(心)으로 하는 것이다. 퇴계 선생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보면 제6도에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라는 것이 있다. 마음이 성정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성정이란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성(理性)과 감성(感性)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퇴계 선생은 마음의 변화를 오행에 따라 측은한 마음(惻隱之心),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 시비를 가리는 마음(是非之心), 충실하려는 마음(誠實之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오행으로 볼 때 측은한 마음의 본성은 목(木)이라는 것이다. 나무라는 것이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에게 생기(生氣)를 준다. 그 생기가 우러나는 감정(感情)의 근원을 인(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仁)은 생(生)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성(理性)의 근원인 애(愛)가 없이는 생(生)이 탄생할 수 없다. 여기서 애(愛)란 음양(陰陽)의 조화(調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仁)은 애(愛)의 이치를 갖추고 있으며 그 마음이 발동하면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볼 때 사양하는 마음의 본성은 화(火)라는 것이다. 불이라는 것이다. 불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나 언제나 이해(利害)를 수반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그 조심하는 감정(感情)의 근원을 예(禮)로 표현한 것이다. 예(禮)는 받드는 마음 즉 이성(理性)의 근원인 경(敬)이 없이는 우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예(禮)는 경(敬)의 이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마음이 발동하면 '사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본성은 금(金)이라는 것이다. 쇠붙이라는 것이다. 금기(金氣)는 모든 것을 수렴한다.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감정(感情)의 근원을 의(義)로 표현한 것이다. 의(義)는 바르다는 것이다. 떳떳하게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義)는 이성(理性)의 근원인 의(宜)의 이치를 갖추고 있으며 그 마음이 발동하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시비를 가리는 마음의 본성은 수(水)라는 것이다. 물이라는 것이다. 물은 차고 넘침을 가려준다. 차고 넘침을 가릴 줄 아는 슬기로운 감정(感情)의 근원을 지(智慧)로 표현한 것이다. 지(智慧)는 시비(是非)를 가려준다. 분별(分別)해 준다. 이처럼 지혜(智慧)는 이성(理性)의 근원인 별(別)과 통한다. 분별(分別)로 통한다. 그래서 지(智慧)는 별(分別)의 이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마음이 발동하면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충실하려는 마음의 본성은 토(土)라는 것이다. 흙이라는 것이다. 흙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리고 모든 곡식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처럼 결실을 가져오는 토(土)는 실(實)과 통하고 실(實)은 신(信)과 통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열매 맺어주는 감정(感情)의 근원을 신(信)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같은 신(信)은 이성(理性)의 근원인 실(實)의 이치를 갖추고 있으며 그 마음이 발동하면 충실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心)이 무원칙하게 성정(理性感性)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기본단위인 오행에 따라 작용하고 있으며 이 성정(性情)의 변화가 곧 사유체계(思惟體系)를 이루어 심리변화(心理變化)를 주도하는 것이다.

자유기고

송우리 찬가

신형숙 前 송우주공2단지 부녀회장

문을 열면 당장이라고 봄 내음이 들이칠 것 같은 아직은 이른 설레이는 3월이다. 계절은 항상 사람에게 베품의 교훈을 일깨우곤 한다. 머지않아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봄꽃이 가득하고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지난날의 우리 2단지 생활은 계절의 순리처럼 아이들의 꿈처럼 아니 모든 이들이 생각하는 무지개 빛 이상이 아닌 최소한의 원칙에도 모순되는 부끄러운 허상이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지 부녀회장 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 마치 새로운 주거문화의 선두주자라도 된 양 의욕적이고 정열적으로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고 한 그 시절이 나에겐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마음은 자생단체란 이유로 내몰려야 했고 아파트 이권분쟁의 꼬리표마저 달려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야 말았다.

법적 단체란 이유로 주민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은 관리사무소와 단단한 고리를 만들었고 공동생활의 관리투명성을 부르짖던 그들은 어느새 은밀함과 폐쇄적인 밀실행정으로 치닫고 혼탁과 법정싸움으로 까지 이르게 되고야 말았다.

제2기 동대표가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파트에 신·구 동대표가 공존하는 기 현상까지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야말로 음해, 욕설, 폭행 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한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우린 봄을 기다리고 있다. 막연한 기대나 남의 잣대로 재어진 그러한 것이 아닌 우리가 준비한 봄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생활관리의 의의는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다. 입주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6개월의 법정공방으로 이제 시시비비는 가려졌을 것이므로 이를 교훈 삼아 다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파트내의 자치기구들은 상호협력하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서 그간 실추된 단지의 이미지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 붙여야 할 것이다.

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린다. 모든 이들이 꿈꾸는 그러한 소박한 일상이 실현될 이 아파트 마당에서 언젠가는 서울찬가가 아닌 송우리 찬가를 힘주어 불러보고 싶다.

그동안 오랜 기간을 밤낮 없이 논의하고 몸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신 제2기 동대표 분들과 입주민 여러분께 이 글을 바친다.